광주 뜨거운 분양열기에 지역 건설사들 U턴

모아, 하남3지구 체비지 낙찰
호반, 계림8구역 재개발 확정
한국, 용봉·양동에 이달 분양

사업장을 찾아 전국 각지로 떠났던 지역 주택건설사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 잇단 재개발·재건축 붐을 타고 광주의 분양 열기가 뜨거워지자 다시 고향에서 사업을 재개하는 건설사가 늘고 있는 것이다.

1일 지역건설업계에 따르면 모아엘가 브랜드를 쓰는 모아주택산업은 최근 광주시가 매각공고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의 공동주택용지를 지난 30일 낙찰받았다. 이 용지는 3만9960㎡ 규모로, 아파트 1500가구 이상이 들어설 수 있다. 모아주택산업이 광주에 다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은 3년 만이다.

이달 중 광산구 소촌동에 233가구를 분양하는 데 이어 하남3지구까지 낙찰받아 지역에서 활발한 분양사업을 재개하는 것. 모아엘가는 지난 2012년 5월 광주시 광산구 선운지구에 404가구가 분양된 것이 마지막이었다.

전국구 주택건설기업으로 성장한 호반건설 역시 3년 만에 재개발사업으로 광주에 사업장을 운영한다. 호반건설은 현재 광주시 동구 계림8구역 재개발조합 시공사 선정이 거의 확정된 상황이다. 도급계약이 체결되면 내년 초 조합원 및 일반분양을 합쳐 24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호반건설은 지난 2012년 첨단2지구 분양을 마지막으로 광주지역 분양을 멈췄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도심 재개발은 중요한 사업인데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정도의 규모라서 참여를 확정하게 됐다"며 "기업의 출발지인데다 인지도가 높아 광주에서의 사업은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광주에서 꾸준히 분양사업을 펼쳐왔지만 근래 주춤했던 한국건설도 4월 북구 용봉동과 서구 양동에 잇따라 분양에 들어가면서 지역에서 부활의 신호탄을 쏘고 있다. 양동 분양의 경우 재개발 사업이다.

잠시 고향을 떠나거나 지역 사업이 저조했던 주택건설사들이 이처럼 지역에서 활발히 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그만큼 광주의 아파트 분양 열기가 뜨겁기 때문이다. 특히 조합 결성 및 인가에 수년씩 걸리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분양 열기를 타고 시간을 크게 단축하면서 건설사들도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도 이유다.

주택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광주의 분양 시장이 활성화되고, 높아진 분양가 덕분에 재개발 조합이 수익을 보전할 수 있게 되면서 조합과 건설사 사이의 마찰이 크게 줄었다"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기간이 단축되자 건설사들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고 최근 분위기를 설명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28.45 (-12.58) 금리 (국고채 3년) 1.72%

▼ 코스닥 650.23 (-0.26) ▼ 환율 (USD) 1102.40원 (-7.10)

삼성전자 직원 연봉 1억200만원 1위

30대 기업 평균 7828만원

국내 30대 기업 가운데 직원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전자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 가운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7개 기업의 직원 연봉을 분석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직원 연봉이 1억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9700만원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삼성화재해상보험(9150만원), 현대모비스(9000만원) 순으로 상위 5위권을 형성했다. 이밖에 에쓰오일(8973만원), 삼성물산(8900만원), SK에너지(8848만원), 삼성생명(8600만원), GS칼텍스(8402만원)가 10위 안에 들었다.

30대 기업의 평균 직원 연봉은 7828만원으로 집계됐다.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은 8780만원, 여성은 5438만원이었다. 연간으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3342만원을 더 받았다.

월급으로 따지면 287만원씩 더 벌었다. 남성 직원의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화재(1억215만원)였으며 여성 직원의 경우 기아자동차의 평균 연봉이 7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기아차 스포티지R 2015년형 모델 출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대표 생산 차종인 스포티지R의 2015년형 모델이 출시됐다.

기아차는 1일 "고객 선호 사양으로 구성된 신규 트림을 선보이고,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트림의 사양을 조정해 착한 가격을 갖춘 2015년형 스포티지R을 본격 시판한다"고 밝혔다.

새 모델엔 고객 선호 사양인 운전석 통풍시트와, 2열 히티드 시트, 전자식 룸미러와 자동요금 징수 시스템 등을 기본 장착한 신규 트림 '에이스'가 들어갔다.

또 스포티지R 구매 고객 가운데 가장 많은 고객이 선택한 '트렌디' 트림은 사양 일부를 조정해 기존 모델 대비 40만원을 인하했다. 이외에도 가솔린 터보 모델의 경우 18인치 알로이 휠, 고급형 오디오와 후방카메라 등 고급 편의사양을 기본사양으로 적용했다. 가격은 자동변속기 기준, 2륜 구동 디젤 모델 2235만~2835만원, 4륜 구동 디젤 모델 2650만~3015만원, 2륜 구동 가솔린 모델 2210만~2390만원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어린이 탑승객에 꽃씨 선물

아시아나항공이 식목일을 맞아 4~5일 김포 출발 국내선을 탑승하는 어린이 승객들에게 채송화와 나팔꽃, 패랭이꽃 중 한 가지 꽃씨와 함께 페트병을 활용해 나만의 화분을 만들 수 있는 입체 퍼즐을 1인당 1개씩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 제공〉

'중기 특성화高' 광주·전남 4곳 신규 지정

18곳 1억7000만원씩 지원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우수 인력을 맞춤 교육 후 취업시키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올해 신규 지정된 4곳을 포함, 광주·전남지역 18개 학교가 지정됐다.

신규 지정된 4곳은 광주 동일전자정보고, 여수정보과학고, 목포여자상업고, 전남조리과학고 등이다. 재지정된 광주지역 특성화고는 광주전자공고, 광주여자상업고, 전남공고, 전남여자상업고, 광주경영고, 송원여자상업고 등 6곳이다.

전남은 나주공고, 전남기술과학고, 담양공고, 해남공고, 순천공고, 순천청암고, 순천전자고, 순천효산고 등 8곳이 재지정됐다.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당 1억7000만원 안팎의 예산이 지원된다.

중기청은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학교와 타 부처 중복지원 학교를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은 산업체와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해 중소기업 취업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주지역 백화점 내일부터 봄 정기세일

광주지역 백화점들이 3일부터 일제히 봄 정기세일에 들어간다. 백화점들은 파격적인 할인행사와 풍부한 이벤트로 침체상태에 있는 매출을 만회한다는 각오다.

광주신세계는 12일까지 10일간에 걸쳐 패션잡화, 생활, 여성, 남성, 아동, 골프, 스포츠 의류 등 다양한 장르에서 20~40% 할인하는 '봄 정기세일'을 진행한다. 또한 인기 생활용품 브랜드 특가 판매 행사를 동시에 기획해 봄 정기세일 기간 동안 고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이번 봄 정기세일 기간 첫 주말인 3일부터 5일까지 신세계 카드(씨티·삼성·포인트)로 30·60·10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5%에 해당하는 신세계 상품권(1만5000원·3만원·5만원)을 증정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19일까지 17일간, 새봄맞이 'Lovely SALE'에 들어간다. 봄 정기 세일은 원래 여름이나 겨울 세일에 비해 참여 브랜드 수나 경품 등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지만, 올해는 최대 10억원 상당의 경품행사 및 호남 최대 규모의 해외명품대전을 여는 등 세일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 이번 명품대전은 약 30억원 물량의 호남 최대 규모의 해외명품대전으로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명품 의류 및 잡화 등을 선보인다.

/김대성기자 bigkim@

자산 5조6천억… 중흥건설, 대기업집단에 신규 편입

지역 건설업체론 처음
한전·금호아시아나도 포함

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중흥건설(회장 정창선)이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전남지역 건설업체가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기는 중흥건설이 처음이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2015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현황'에 따르면 올해 총 61개 기업이 지정된 대기업집단 목록에 중흥건설은 유일하게 신규 편입했다.

43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중흥건설은 지난해 3조8000억원이었던 자산총액이 올해 5조6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자산규모로는 61개 집단 가운데 59위에 해당한다. 최근 3년간 전국에 3만4000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하고, 지난해 11월 토지비용만 7000억원을 넘는 광교신도시 땅을 구입한 것이 자산 증가로 이어졌다. 중흥건설은 앞으로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와 신규순환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공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수 년간의 성장을 통해 국내 대표 주택건설업체로 올라섰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지역민의 성원에 힘입어 성장을 거듭한 만큼,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 크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61개 대기업집단 중 광주·전남지역 업체로는 중흥건설 외에도 새로 나주에 둥지를 튼 한국전력(2위, 자산 196.3조·계열사 24개)과 함께 금호아시아나그룹(25위, 18.8조·계열사 26개)이 포함됐다. 삼성그룹은 지난해에 이어 자산총액 351.5조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